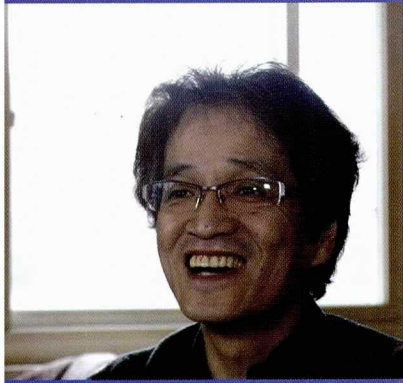




강원도 덕초현 천문인마을 조현배 화백



이달에 만날 아마추어 천문인은 조현배 화백. 아마추어 천문의 메카로 불리는 강원도 덕초현 천문인마을의 주인장이다.

3월임에도 눈 소식이 들려온다. 일기예보를 보고 눈 안 오는 날로 인터뷰 날짜를 잡고 강원도로 출발을 했다. 찢빵으로 유명한 안흥을 지나 천문인마을로 들어서는 길은 몇 년 전에 찾았을 때처럼 비포장인 곳이 많았다. 울퉁불퉁한 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천문인마을. 산기슭 언저리에 지어진 건물 위로 하얀색 돔이 보인다. 한가한 평일 오후인데다 젓빛 구름마저 낮게 드리워져 있어 웬지 모를 음산함이 감돈다. 그러나 건물로 들어서자 기자를 반갑게 맞는 주인장과 발갱게 타오르는 장작불,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바깥 공기의 음습함을 떨어낸다.

“이렇게 깊은 산 속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길이 좀 험하죠. 그만큼 별 보기는 좋은 곳입니다.”

며칠 전에는 메시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 올해로 벌써 7회를 맞이한 대회로 그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하늘이 맑아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회인데, 참가자들의 열기를 식히려는지 대회도 중 눈발이 날렸다.

“메시에 마라톤은 하룻밤 동안 메시에 목록 천체 110개를 찾는 대회입니다. 아마추어 천문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죠. 올해는 120여 명에 1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예년 보다 좀 일찍 해서 참가자가 다소 적었습니다. 월령 따지고, 주말 따져 날짜를 잡아야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가 도와주질 않은 점이 아쉽지만, 하늘이 열리길 바라며 새벽까지 망원경을 지키는 이들의 열정을 보면 주최자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메시에 마라톤은 심사위원도 없고, 상금도 없다. 참가자가 직접 채점하고 순위만을 겨룬다. 그만큼 대회 참가자들은 열정적이고 순수하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정말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니다. 심한 말로 하자면 미쳤다고 해야할까요. 이 먼 곳까지 무거운 장비를 싣고 오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별에 미친 사람들의 성지

천문인마을의 첫 벽돌을 쌓은 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조 화백이 이 산골짜기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벌써 10년이군요.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별 보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별 잘 보이는 곳이지요. 바로 그런 곳을 찾다 보니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은 이후로 3년 동안 오가면서 정말 별 보기 좋은 곳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건물을 지을 당시 여러 동호인들의 도움도 컸다고 한다.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벽돌도 나르고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다 지어지고 나서는 무거운 망원경을 짊어지고 와서 관측을 하곤 했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을 때면 흐뭇합니다.”

현재 천문인마을을 찾는 고정 멤버들 중에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아마추어들이 다수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일본이나 미국 아마추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사진 찍어보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사진을 보면서 ‘어, 이걸 좀 못 나왔네’라는 비평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는 디지털이 천체 사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IT 강국의 강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현재 천문인마을 건물을 비롯해 그 주변으로 동호인들이 지은 관측 돔에는 15대 정도의 망원경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천문인마을이라는 이름에 손색없는 수준이다.

“이곳을 찾는 마니아 중 디지털 천체 사진 모임인 NADA(Network of Amateur Digital Astrophotography)의 이건호 씨는 혼자 원격 관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이곳 망원경을 구동해 천체 사진을 찍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하죠.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아마추어들이 많습니다. 원격 관측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직접 망원경을 움직이고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값진 경험이겠습니까. 또한 지역 사회에서 천문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아마추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구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존 아마추어 천문인

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의 메카, 별빛보호지구, 천문과학관 등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천문인마을.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상과 현실, 그 중간쯤

“천문인들에게는 별을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다고 멋있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해 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이곳에 올 때는 무조건 별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만 있었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해안 절벽 위에도 1층은 아뜨리에, 2층에는 돔이 있는 멋진 건물을 꿈꾸었습니다. 만약 그 꿈대로 했다면 유명한 관광지가 됐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 화백에게 10년 전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후회요? 물론 후회도 뛴니다. 그런데 이 길을 결정한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데 이 길을 선택한 제 자신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냥 10년 동안 잘 놀았다 생각하고 그만 놓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곳 문 닫으면 여기 오던 아마추어들은 어디로 갈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어디든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방법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었습니다.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그때 손을 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새 창 밖에는 하얀 눈발이 흩날린다. 나름대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왔건만, 혹시나 폭설로 이곳에 고립되는 건 아닐까 은근히 걱정된다.

“굉장히 신기한가봐요? 여기서 저 정도 눈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보통 겨울에 마흔 번 정도 큰 눈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른 번도 안 되요. 4월까지도 눈이 오니 저런 모습을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3월임에도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머물고 있는 천문인마을. 10년 후, 어느 따스한 봄날에 찾은 천문인마을에서 기자를 반갑게 맞는 조 화백의 변함없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본다.